

전주한지 수출 물꼬... 세계화 첫걸음

천양피앤비·고감한지&페이퍼, 프랑스 메종&오브제·독일 크리에이티브월드 각각 참가 성과 거둬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전당)가 전주한지 수출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31일 전당에 따르면 천양피앤비(주)와 고감한지&페이퍼 두 기업이 지난 한 달간 해외 박람회 참가,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먼저, 천양피앤비(주)는 1월 18~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인 메종&오브제(Maison&Objet)에 참가해 한지의 주요인인 다펀을 주제로 전주한지 위에 다양한 패턴들을 디자인한 작품을 선보이며, 올해 1만 달러 이상을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고감한지&페이퍼는 1월 27~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 국제 수공예용품 박람회인 크리에이티브월드(Creativeworld)에서 전주한지를 알리고, 현장에서만 2만 유로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그동안 전당에서 전주한지의 수출 발판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결과다.

특히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 지원 공모사업에 한지 건축·인테리어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돼 △용복합 제품개발 △시



고감한지&페이퍼는 지난 1월 27~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 국제 수공예용품 박람회인 크리에이티브월드(Creativeworld)에서 전주한지를 알리고, 현장에서만 2만 유로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시험분석 및 인증 △전시회 △특허(기술) 컨설팅 △사업화 패키지 △마케팅 지원 등 수혜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3차년 동안 매해 10개 이상의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이는 전당과 전주 전통한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업체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0일 갑진 새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갑진(甲辰) 새해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9곡의 전래동요를 새롭게 구성해 선보이는 기악합주,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공중무용 '학연화대합살무', 판소리 '적벽가'의 하이라이트 대목을 모듬북 연주와 선보이는 '단막창극 적벽'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새해의 좋은 기운을 전한다.

또한 관객들을 위해 오후 2시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비나리, 죽방울놀이, 전룡연희놀이 체험과 일연 유현덕 작가와 함께하는 '새해 소망, 기원 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공연 종료 후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담은 청룡 양초를 무료로 증정하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620-2329)나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의 대화)로 가능하다.

김중현 원장은 "설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명절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원, 외국인 발걸음 이어진다

1월 29~31일 6개국 160여명 태권도 수련·체험 다녀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올해도 많은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찾은 것으로 기대하며 태권도와 케이(K)-컬처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광둥성 심천시 태권도 수련생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홍콩 등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130여 명이 태권도원을 찾았다. 중국 심천시에서 온 30여 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성지 탐방 목적으로 29일과 30일 태권도원을 방문해 품새 수련과 태권도원 투어 일정 등을 가졌다.

또한, 31일에는 전북대학교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필링 코리아'에 참가 중인 외국인 학생 130여 명이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태권힐링체조 등 태권도 체험 시간을 가졌다.

올해 태권도원 방문을 확정된 해외 태권도 단체는 미국 메릴랜드 이성구 사범 일행과 리브러더스·타이거진 태권도, 브라질 김요진 사범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권도원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수련과 훈련 등 장기 체류하는 내외국인 단체를 위해 태권도



라키비움 조성과 체험관 YAP, 플레이인, 전통무예수련장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기 태권도는 케이(K)-팝, 케이(K)-드라마 등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케이(K)-컬처 대표 주자이다"며 "오는 4월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행사를 비롯해 7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9월 세계태권도 워터파크디아몬드게임 등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굵직한 행사와 국제 대회에 해외 원로사범님들과 선수, 수련생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과 친절, 위생 등 외국인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복을 그리는 화가 르누아르 레플리카전

군산예술의전당, 4월 30일까지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미술책에서 만날 수 있었던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레플리카전을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총 91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가 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작가로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와 붓터치를 이용하여 당대 사람들의 일상을 경쾌하게 화폭에 담아 많은 사랑을 받은 화가이며, 이번 전시에는 '로맹 라코앙의 초상', '파리의 여인', '피아노 앞의 소녀' 등 레플리카 작품 총 54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레플리카(Replica)전이란 그림이나 조각의 원작을 복제한 작품을 의미하며 복제의 목적이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한 것으로 현재는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형태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르누아르의 일생을 6가지 색선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1색선은 화가로서의 시작, 2색선은 르누아르와 함께한 인상파 친구들과, 3색선은 일상 속 행복을 그리는 화가, 4색선은 여행, 화가로서의 전환점, 5색선은 인상주의와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6색선은 생의 마지막 작품을 전시한 고통을 이겨내는 힘으로 나눠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또한 좀 더 쉽고 재밌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슨트(전문안내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주말 운영(하루4회)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플라워 & 명화 주인공 포토존과 자화상 그리기와 컬러링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이 인상 깊게 기억될 수 있도록 체험존을 준비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르누아르 레플리카전'은 무료로 진행되며 설 명절기간 정상 운영에 귀성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